

# Green Tourism과 농산촌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김종숙\* · 송정기\*\*

(\*한국농업전문학교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 A Study on Green Tourism as a Method of Rural Revitalization

Jong-Sook Kim\* · Jeong-Key Song\*\*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Dept. of Soci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적 요

본 연구는 농산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농산촌 재구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사례지역의 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의 문제와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농촌발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문헌연구를 통해 그 개념과 사회적 의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조사지역과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의 현실적 유용성과 문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산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으로는 전북 순창군을 선정하였으며, 일본 기후현(岐阜縣) 시라카와촌(白川村)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린투어리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논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업의 다면적 가치와 기능을 실천하는 것이며, 대규모 농촌개발이나 관광이 갖는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대안으로서 도시민과 농촌인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경제적·수단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참여와 니치이즘적 특성 실현이라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전북 순창군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그 유용성과 기대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동원이라는 점에서 아직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린투어리즘의 실천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와 인재양성이라는 소프트의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인간의 심성을 키워나가며 자연의 힘과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린투어리즘이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지 성공사례나 방식을 배우는 것만으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1. 서론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요소를 시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 공단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의 유치 및 각종 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발굴 능력이나 주민의 참여도 또한 높지 않는 지자체의 현실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과거에 지역 발전을 위해 채택되었던 교육시설의 유치나 산업기반의 확충 등의 전략은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유용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지만, 그 부작용으로서 환경오염과 개발이익의 지역외 유출, 지역간 소득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 노출이 적지 않았으며, 획일적인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이 무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지역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역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둔다면, 기본방향은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즉, 거대 공업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정책보다는 첨단기술, 디자인, 관광 등 소프트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문화,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정책이 요구된다. 지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적 부존자원의 격차를 무시한 채 모든 지역이 성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등 인기산업을 똑같이 유치·육성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역관광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개발방식에 따라 고용증대 효과, 소득유발 효과, 지방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 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이미지 제고 등 경제외적 효과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뛰어난 산업이다. 또한 개발가능한 자원이 특정자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조달이 어렵고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서도 성장가능한 지역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90년대 이후 관광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한편에서는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편익효과 등에 관한 연구(김선기·이미혜, 1992)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관광학회를 중심으로 지방화시대와 관광개발에 관한 세미나(1994)가 개최되어 지방화 시대의 등장과 함께 관광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여기서는 주로 지역개발 전략으로서의 관광개발, 여가 관

광산업의 비전, 지방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손대현, 1994; 이강로, 1994; 이광희, 1994)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 후에도 “새로운 관광개발 개념의 모색”(오순환, 199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의 수단화 연구”(장인식, 1997) 등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이 주로 산업과 경제의 측면에서 관광개발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다른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산촌이 갖고 있는 식료공급지로서의 역할과 환경적 가치의 증대를 반영하여 농촌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연구에서는 “농촌관광계획의 그린투어리즘 도입에 관한 연구”(이경진, 1996),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생태유지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이광희·변재진, 1992)와 같이 녹색관광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제안하는 수준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농촌관광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개발론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개념적 문제 제기의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인류학, 관광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며, 환경사회학이나 농촌사회학의 영역에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미 일본을 포함한 해외지역에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이 실효를 거두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농산촌 지역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해외지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그린투어리즘이 지역활성화 방안으로서 매우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역활성화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과의 연계, 주민참여, 지역자원의 동원과 같은 상호관련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다루기보다는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 등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농산촌 재구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사례지역의 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의 문제와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농촌발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문헌연구를 통해 그 개념과 사회적 의의를 명확히 하고, 조사지역과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의 현실적 유용성과 문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산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지역으로는 전북 순창군을 선정하였으며, 일본 기후현(岐阜縣) 시라가와촌(白川村)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그린투어리즘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논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북 순창군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린투어리즘을 근정의 역점 시책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1999년 10월에 아시아 그린투어리즘 총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을 뿐더러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것을 도입하려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게도 모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사례지역은 과소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순창지역과 유사성이 있으며, 과소지역의 조건 불리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이다. 농촌관광으로 성공하게 된 데에는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그린투어리즘에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 1. 그린투어리즘의 개념과 성립 배경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이 환경 파괴, 자원고갈, 토지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지쳐 있는 도시민에게 휴식의 제공지로서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공간으로서 주목받게 되면서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수입자유화와 농촌경제의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생산기반인 토지의 생산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농촌 관광의 새로운 흐름으로 “녹색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관광산업이 학술적·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APEC Tourism Working Group(1995)에서는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한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광 발전을 위해 자원보존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관광발전에서도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친화적 관광개념으로 생태관광(eco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 등의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생태관광이 생태자원의 보전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라면, 녹색관광은 농업과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녹색관광을 “체재형 농가민박”, “농촌체험”, “도농교류” 등 다양한 개념적 요소를 지닌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화된 개념 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관광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의 사용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reen tourism”을 녹색관광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그린투어리즘”으로 쓰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린투어리즘 개념이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철학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갖기 때문이다.

### 가. 관광의 시대: 신전원주의와 농촌관광

관광은 여가에 관한 문화·제도·경제의 세 시스템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山下晉司, 1996:6). 과거의 대량관광(mass tourism)은 풍요로운 시기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텔, 대형 리조트, 골프장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고 농산촌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개발로 인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해만을 노정시킨 경우가 많았다. 종래의 상업주의적 관광사업과 개발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A. Montanari, 1996; 宮崎 猛, 1997) 오늘날의 농촌 관광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수요를 만들고 있다. 그 하나는 농산촌 개발이 주민참가와 연대에 의한 내발적·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민이 자연 속에 머물면서 그 지역사람들과의 인간적 교류를 통해 자기를 재충전하는 “체재형·체험형의 여가활동”이어야 한다는 신전원주의(新田園主義)의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는 농촌환경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 Mornmont, 1987).

그린투어리즘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탄생하였으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농산촌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채용되고 있는 탈풍요사회의 서비스산업인 것이다. 70년대 유럽에서는 농촌관광(rural tourism)이 농가민박의 형태로 보급되어 이제는 농업관광(agri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 그린투어리즘, 유산관광(heritage-tourism)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으며, 일본에서도 90년대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개념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농산물, 농촌경관,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을 농업관광, 전원을 활용하는 관광을 그린투어리즘, 농촌지역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관광 전체를 “농촌관광”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은 광의로 볼 때 농촌관광의 하위개념이며 생태관광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은 기본적으로 1) 전형적인 농촌이나 산림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관광, 2) 서비스의 주체가 농가나 그 지역주민, 그리고 3) 도시주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농촌의 생활, 문화자원 등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야마자키 외, 1993=1997: 12~3). 농촌환경의 중요성은 국토환경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의 향상을 통한 건전한 농촌생활 및 생산환

경의 확보라는 생태학적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농촌경관의 보전·정비를 통해 도시민과 교류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농촌환경을 잠재력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1994년 농어촌정비법(제66조, 67조)에서 “관광농원”, “민박마을”, “휴양단지” 등의 형태로 도시주민과의 교류 및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sup>1)</sup> 최근 농협이 주체가 되어 농가민박과 농업체험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도시의 활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Farm Stay 운동”이 개별농가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역진흥전략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가속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위기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안전한 음식, 여가와 교육, 복지, 거주의 장소로서 농촌을 선호하는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편에서는 공업화와 도시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우려를,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 정주의 장소로서 전원 생활에 대한 선호와 농촌에 대한 향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구에서 말하는 신전원주의(neoruralism)의 등장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계기로 자연으로의 회귀나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반영하여 농업적인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형태로 전원으로의 여행과 체재, 즉 그린투어리즘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blue tourism(해변에서의 리조트), white tourism(산악스키 리조트), light tourism(도시관광)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에 대한 이미지 색으로 녹색(green)이 사용된 것이다. 또한 80년대에 전원으로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90년대의 귀향(down-shifting)과 그 결과로서 역도시화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back to the land”(대지로의 회귀)이나 “retro future”(그리운 미래)와 같은 개념은 공업문명의 낭비적인 도시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생 및 순환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린투어리즘이 단지 경제적 의미의 관광산업이 아니라 “시간창조형 여가”를 표현하는 말로 변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은 그린투어리즘이 바로 뒤에서 다루게 될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佐藤 誠, 1999).

#### 나.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그린투어리즘

80년대 이후 농업의 가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데는 농업을 산업으로서의 가치만을 다루는 데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농업에 대한 가치는 경제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김중숙·민상기(1994: 12)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즉, 농촌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한 식품의 생산, 물리적 환경의 보존,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존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며, 따라서 농업은 그러한 기능의 각각에 대한 경제적 가치, 생태환경적 가치, 생활가치 등의 본질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은 바로 농촌의 위기를 초래한 후기산업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 및 자기반성을 촉진하고 공생의 원리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제시하는 대안을 구하는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은 바로 이러한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투어리즘에 있어서 “green”은 단순히 산림이나 전원성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녹색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며 동시에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999년 7월에 제정된 일본의 “신농업기본법”에는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농업정책과 지역정책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식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 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촌진흥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의 다면적 기능으로는 국토보전, 수원(水源) 함양, 자연환경의 보전, 양호한 경관형성, 문화전승 등 농산물 공급 기능 외의 다면적 기능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농업의 자연 순환 기능과 생물다양성 개념이 강조된다면, 다면적 기능이란 종합적으로 농촌의 “아메니티”(쾌

적) 유지·증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호한 경관의 형성, 문화전승,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직접적으로 아메니티 유지·증진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니티는 지역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향유하는 방법으로 농촌에 살거나 농촌을 방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농촌지역 방문으로 아메니티를 향유하는 것이 바로 그린투어리즘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은 농업의 다면적 가치와 기능을 실천하는 것이며, 도시민과 농촌인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나 주민소득증대 등은 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촌관광개발 전략은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촌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농촌 아메니티의 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야생, 경작에 관련한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인 모든 것들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농업의 다면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중시함으로써 농업의 외부경제를 내면화하여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농촌의 아메니티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려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농촌관광의 핵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농촌 아메니티의 외부경제가 지역사회에 일출되어(spillover)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린투어리즘인 것이다. 농촌 아메니티에 대한 도시민의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면서 OECD 국가들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은 아메니티의 생산자·공급자·관리자 역할을 농민주민이 맡고 도시민이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즉 사회가 보상하도록) 한다는 도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OECD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 아메니티에 관한 논의는 우리 농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한국의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의 증대사업으로 시작된 감이 있을지라도 농촌이 갖는 다면적 기능은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농촌활성화의 충분한 잠재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 아메니티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농촌민박이나 관광농원과 같은 획일적이며 상품지향적이며 생태파괴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농촌 아메니티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공급을 모색해야 한다.

## 2. 지역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농산촌이 갖는 고유의 자연, 문화 등에 대한 도시 주민의 관심 고조,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촌관광 추진을 통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나 리조트 개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자연환경 및 경관을 중요시한 소규모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의 재평가,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는 중산간지역의 자원(농지, 산림, 경관, 문화재 등)을 유지하고, 농림업 중심의 지역산업의 확대 및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과소화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농산촌에 대한 기대의 고조 등이 선진유럽 및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농촌환경의 보전과 기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배경이라고 할 것이다.

유럽에 있어서 대규모 농촌개발과 폭발적 농촌관광의 증가로 인해 농촌지역의 환경이 크게 파괴됨에 따라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EU의 농업정책공동체(CAP)를 중심으로 유럽 농촌지역의 심각한 농업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전원지역을 위한 유럽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A. Montanari, 1996), 1991년과 1995년의 관광추진계획(CATP)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관광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산시키고 관광활동의 환경에 대한 부하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자원이 되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宮崎 猛, 1997).

한편, 일본의 경우도 70년대 들어와 농업의 기계화 및 기술집약화, 농촌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농촌지역의 환경파괴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소위 “고도경제성장기”라 불리는 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관광 리조트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것이 지역활성화의 지름길로 인식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농산촌의 침체현상이 가속화되고 기존 관광지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 사이드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농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과 자치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조성 모델지구 특별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그린투어리즘은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농산어촌에서 그 지역의 자연, 문화, 인간적인 만남으로서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손대현 외, 1995: 35)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농림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 산업에 의해 배양된 농촌문화 및 이차적 자연인 농림지를 포함한 농촌의 자연을 활용한 농촌관광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농산촌의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치성 주관의 아름다운 마을조성 모델지구 특별정비사업은 환경개선과 보조시설의 정비를 골자로 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연장선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 두 정책은 모두 농촌환경의 보전과 활용의 두 측면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농촌환경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생태적 측면에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 및 보전에 관한 연구(森山惠一, 1992; 勝野武彦, 1997)와 농촌경관의 보전에 대한 연구들(宮崎 猛, 1997; W. G. Droms, 1990; T. Miyazaki, 1995, 1996)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토환경의 보전적 측면에서 농촌환경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 및 공공재로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보고(김범수, 1997) 등이 있다.

농촌관광에 관한 최근의 국내에서의 연구는 주로 관광농원의 실태와 경영분석(유승우 외, 1997; 류선무, 1995; 서종혁, 1991; 농협중앙회, 1993)과 농촌관광 수요자 분석과 선호도 조사를 통한 개발 유인 및 지원책에 관한 연구(김범수 외, 1997; 한국관광공사, 1996)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농촌관광의 당위성을 논의하거나 주체로서의 주민이나 지역조직과 같은 동원자원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사회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실 많은 농촌관광 사업의 실패는 그것이 지역조직과 같은 자생적 기반에 토대를 두기보다는 정부주도의 일괄적인 지도와 지원에 있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농촌관광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이를 결정하는 문화적 수용력(cultural capacity), 공간적 수용력(carrying capacity), 그리고 사회적 및 제도적 기능(social & institutional function)을 분석해야 한다(OECD, 1994). 농촌관광의 발전은 바로 이 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세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 아메니티(amenities)를 창출함과 동시에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의 복원 및 보전에 관한 연구와 농촌경관에 관한 보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학적 차원에서의 농촌환경자원의 활용 및 지역사회동원 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농촌환경 보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주로 시장논리나 도시적인 개발 수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어 농촌주민이나 지역사회조직의 차원에서는 수동적인 접근이 되어 농촌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다양하고 변화있는 도시민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숙박이나 유흥업 등 규제 대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관광농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주체가 지역 농민이 아니라 도시자본의 기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작 농민의 소득에 기여하지 못할 뿐더러 이익이 지역 외로 유출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사례분석 결과에서는 농촌관광의 실시에 따른 이익이 소수의 지역주민과 외부자본에게 돌아간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효과가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역주민 사업능력 향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민상기 외, 1995)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관광농원의 개발과정이 인적 자원보다는 물적 자원에 강조를 둬으로써 자원 동원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며 농업과 관광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로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조직이 갖는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개발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도록 정부의 지원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주민을 주체로 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소위 풀뿌리 주민의 조직과 행정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체와 관련되어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의 특색은 그린투어리즘 서비스 공급자인 농가의 공급행동이 집단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집락의 집단적 관리라는 일본 수전농업과 사회조직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그린투어리즘은 그 무대가 집락이며, 서비스가 포디즘적인 효율주의 노동과는 대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발휘한다는 “니치이즘”(nichism) 노동이라는 특징이 있어, 특히 여성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집락(集落)을 중심으로 여성과 고령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그린투어리즘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橫川 洋, 1999: 251~253).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로를 모색하는 농산촌 지역활성화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주민이 어떻게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직론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지자체 행정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은 시정촌에서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기존의 유사 사업들이 보다 종합적인 연계성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井上和衛, 1999). 시정촌이 숙박, 레스토랑, 직매장, 관광과수원, 도예체험실습관, 캠핑장, 테니스 코트, 전통가옥 보존자료관, 연수센터 등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도시 농촌의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정촌은 마을 진흥회와 같은 조직을 후원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틀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이 주도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단위로

경영을 하게 되거나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 되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며 농산물 가공, 환경농산물 생산 등 고부가가치형 농업을 시작하면서 주민주도형의 그린투어리즘으로 발전하게 된다. 주민주도형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행정에서는 농업집락배수사업, 보건의료복지, 생활환경 정비등 환경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경영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중심을 옮기게 된다.

### 3. 그린투어리즘의 효과

#### 가. 그린투어리즘의 3가지 원점과 5가지 만남

구주대학 요코가와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그린투어리즘에는 3가지 원점과 5가지 만남이 있다고 한다(橫川 洋, 1999: 253).

3가지 원점에는 (1) 서비스의 주체가 가정과 집락이 되어 고객을 접대, (2)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서비스 거래, (3) 서비스 내용이 노동과 놀이, 그리고 교육이 혼연일체되어 있는 것이며, 5가지 만남에는 (1) 중개자가 상품인 경우(만남의 시장:아침시장과 저녁시장, 산지직판교류, 물산관), (2) 중개자가 전승 문화인 경우(神佛祭, 지역축제, 향토요리, 가공 체험), (3) 중개자가 경관인 경우(반딧불 축제), (4) 중개자가 농지인 경우(계단식논 소유, 관광농원, 아동농원), 그리고 (5) 중개자가 불필요한 경우(무릅맞덤식 농가 민박)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린투어리즘 서비스의 매력은 “만남(교류)”과 “거리낌없는 접대”이며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원점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를 비즈니스와 연결시켜 지역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 번 찾은 지역을 다시 찾아가 그 지역의 열성팬이 되는 서비스 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이 완성되어야 한다.

#### 나. 그린투어리즘의 효과와 지역경영

그린투어리즘이 농산촌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농촌환경보전을 꼽을

수 있다. 즉, 그린투어리즘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며, 지역이미지를 전환하여 지역내의 산업간·계층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촉매가 된다는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의 사회적 효과는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그리고 지역문화의 창조와 같은 효과가 있다.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에 맞추어 도시와 농촌이 융합되는 공생사회의 성립 계기가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집락을 단위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은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행해지며, 그 결과 관광산업으로서의 지장(地場: 지역 토착)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농가, 계단식 논 소유자를 지도하는 농가, 가공체험을 지도하는 농가, 향토요리를 서비스하는 농가와 레스토랑, 토산물을 제조하는 농가, 농가민박 등이 지역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산업은 원재료와 노동력이 지역내에서 자급되기 때문에 매상액이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매우 커서 지역에 유리한 지장산업인 것이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아메니티의 대가는 일반적으로 농가소득의 다원화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니치이즘 노동서비스를 공급하는 여성과 고령자의 개인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린투어리즘을 경제면에서 단순화하면 농산촌이 갖는 자연, 문화, 역사자산이라고 하는 풍부한 자원을 농산촌을 방문한 도시주민에게 공급하여 대가를 얻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중요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宮崎 猛, 1988: 28). 첫째는 그린투어리즘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이고 수요와 공급, 가격은 모두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다. 둘째는 자연, 문화, 역사자산은 이를 소비하는 데 돈을 받기 어려운 자원(공공재), 즉, 시장경제에 어울리기 어려운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시장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부문에 대하여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도시에서 오는 내방객은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서 그린투어리즘 산업에 돈을 지불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린투어리즘 산업이란 특히 그린투어리즘을 의식하여 만든 숙박시설, 관광, 체험시설, 식당, 레스토랑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지불되는 돈의 일부는 그린투어리즘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로써 가게로 들어간다.

한편 그린투어리즘 산업에서는 농산촌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재나 선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업, 농림수산물가공업, 음식업, 소매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들 산업에 돈이 흘러간다. 흘러간 돈의 일부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게에 들어가고 일부는 다른 산업에의 수요로 흘러간다. 또한 각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게에 들어간 돈의 일부는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지역내의 각 산업에 소비수요에 대한 지불로서 지역내의 여러 가지 산업에 환류되고 그것이 다시 각 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킨다.

이와 같이 그린투어리즘 산업에의 수요는 그 부문의 생산액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타산업의 생산도 유발하고 덧붙여서 가게소득의 증가에 의해 소비수요도 증가시키고 이것이 또한 각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파급효과에 의해 그린투어리즘 산업에의 수요는 그 지역내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도시농촌교류산업 또는 그린투어리즘산업은 지역내의 각 산업과의 연관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도 비교적 크고 더욱이 지역경제 전체에 널리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 산업과 지역내의 타산업과의 경제적 연관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경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히 농업, 상업 등 지역내의 각 산업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환경을 포함한 지역자원의 적절한 관리는 지역이 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에서 따로 따로 사업을 수행하면 그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결국 지역의 그린투어리즘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지역자원의 관리라는 관점

에서 일정한 계획과 규제는 불가결하다. 이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일과성 관광객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정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정객 또는 지역의 열성팬 확보는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는 방안이고 또는 일과성 관광객이 초래하는 환경파괴 방지의 관점에서 또한 계절에 따라 집중되거나 한산한 정도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4박 5일 이상의 체류형 내방객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산품, 전통행사, 농작업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역자원의 경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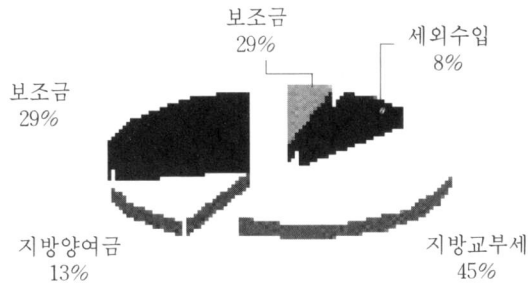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투어리즘은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에 의해 이점이 발휘될 수 있으며, 이를 살릴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여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역자원의 적절한 관리라는 점에서 행정의 참여는 불가결하며 자금, 인재 문제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 궤도에 오르면 국내 및 해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행정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경영 능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각 부문과 지역 밖으로부터 전입해 온 사람들의 활력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자원 및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집락과 촌락의 자연환경, 농업자원, 산업, 전통문화, 문화유산 등의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신감과 긍지가 높아져 지역주민의 정신이 고양되고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등 사회적 효과도 크다. 즉 지역활성화에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의 고객이자 서비스를 공급받는 도시민의 격려도 지역주민에게는 힘이 된다. 이처럼 그린투어리즘의 효과에는 경제적 효과로서의 니치이즘적 특징이 있으며, 사회적 효과도 크다는 특징이 있다.

### III. 그린투어리즘의 사례: 전북 순창군의 사례

#### 1. 순창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례지역이 속해 있는 순창군은 전라북도 최남단



98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세입부문

에 위치하여 남원군, 정읍군, 임실군 등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은 전라남도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에 접하여 도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의 생활권을 갖고 있다.

순창군은 도내 중심도시인 전주에서 58km 떨어져 있어 버스나 자가용으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군 전체 면적 가운데 임야가 67%, 농경지가 24%를 차지하는 준산간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로 인해 순창군은 군내의 주요 산업이 농림업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산간 농업지역이며, 그 결과 제2, 3차 산업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세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sup>2)</sup> 특히, 순창군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이고 세외수입은 8.3%로 재정자립도가 13.2%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44.5%, 지방양여금이 12.9%, 그리고 보조금이 29.4%로 구성되어 군 자체적 재원의 확보가 매우 곤란하고 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지리적, 산업적 입지 특성 때문에 순창군에는 풍부한 전통이 살아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음식문화가 잘 보존되고 발달된 지역이기도 하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은 철분이 많고 그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고추장을 상품화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제조업체가 읍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최근에는 "전통고추장 보존협회"를 구성하고 120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백산리에 전통특산고추장 민속마을을 조

성한 바 있다. 현재는 60호 가운데 약 54호가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순창읍 가잠리에는 고추장뿐만 아니라 전통음식으로 유명한 집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어 오고 있다. 군립공원인 강천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기로 유명하며, 소설 "남부군"으로 알려진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회문산에는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찾고 있다.

순창군은 과거 삼한시대에 옥천(沃川)으로 불렸으며 현재에도 매년 10월 15일에 유림들의 주관으로 군민회합과 풍년을 기약하는 "옥천 순화줄다리기" 행사가 군민의 날에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과 민속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남근석을 중심으로 한 남근신앙이 풍부하고 장승제, 당산제 등이 마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순창군지편찬위원회, 1982). 이같은 자연풍토, 음식, 전통문화와 종교의례 등은 산간 농업지역인 순창군의 고유한 특징이며 후술하게 될 지역활성화의 잠재력이 될 것이다.

순창군내의 가구 및 인구현황을 보면, 96년 10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수는 12,793호, 인구는 38,679명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약 2%에 불과하며, 한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함으로써 전형적인 과소지역으로 불리우고 있다. 순창군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60년으로 194,700명이었다. 그러나 1969년에는 100,44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71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는 93,444명으로 10만을 약간 밑도는 정도이었으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1991년에는 42,485명으로 불과 20년 사이에 다시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감소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이후에도 지속되어 98년에는 36,832명에 지나지 않는 과소농촌이 되었다.

표 1은 1971년부터 1998년 사이의 순창군 인구현황 및 감소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같은 인구감소 추세는 산간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취업기회가 제한된 순창군으로부터 교육 및 취업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장년층의 감소 및 출생률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장년층의 인구유출과 출생률의 저하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결부되어 지역의 재정능력과 생산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다.

## 2.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 현황

순창군 사례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그린투어리즘을 농촌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진흥정책에 도입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순창군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 그리고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을 군정의 우선 시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의 풍부하고 공해없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인정있는 농촌 특성 등을 개발하여 도시인들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농촌인에게는 농산물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 소득 증대는 물론 도농 교류를 통한 공생의 원리 창출 및 농촌 정보화 등 농산촌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활성화란 단지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화와 고령화로 침체

된 농촌을 활력있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실천은 농업을 단순한 식량의 생산에 한정시키지 않고 농사를 체험하여 농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학습하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농촌 진흥운동이 될 것이다.

순창군은 96년 5월에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우키하정(浮羽町)과 자매결연을 맺어 실무조사단 연수를 계기로 새로운 농촌진흥시책으로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3)</sup> 이후 순창군은 96년 9월에 그린투어리즘 관련 학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하였으며, 97년에는 “아시아그린투어리즘회”를 가발족하고 같은 해에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사업구상을 하였다.<sup>4)</sup>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대만, 태국 등 6개 국가의 지자체들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아시아그린투어리즘 총회”가 제1차 연도인 97년에 일본 사가현(佐賀縣)에서 그리고 제2차 연도인 98년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을 때 참가한데 이어서 99년 10월에는 순창군에서 제3차 아시아그린투어리즘총회를 유치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98년에는 지역주민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그린투어리즘의 민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화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구상은 표 2와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순창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투어리즘의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좀더 세련되게 구체화한다면 가칭 “군민현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1) 자연경관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

표 1. 순창군의 각년도별 인구 및 인구감소율

	1971년	1976년	1979년	1987년	1991년	1996년	1998년
인구수(명)	93,444	89,499	77,518	54,783	42,485	38,638	36,832
인구감소율*	100.0	95.8	83.0	58.6	45.5	41.3	39.4

\*197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하여 대비한 수치임 출처: 순창군 통계연감, 각년도.



을 한다. (2) 사회간접시설의 이중 투자를 억제하고, 주택개발과 시범마을 조성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 (3) 주말농장, 임대 가정농장, 과수농장 분양 등을 통해 가족 및 동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원농촌개발을 한다. (4) 지역 전통행사의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발 등 지역전통과 특색을 살린 이벤트를 개발한다. (5)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전원농촌개발, 현장체험과 휴양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관광지화를 통해 쉬어가고 싶은 전원관광 코스를 개발한다. (6) 토산품을 이용한 신토볼이 향토음식 개발, 전통음식 제조과정 시연을 통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그린투어리즘 시설은 현재로서는 관광농원 2개소,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추령장승촌, 기타 민박농가 정도에 불과하다. 화양 관광농원은 97년 10월에 방 10실과 농업체험 시설(비닐하우스, 버섯재배, 풀장)을 갖추고 있고, 서원농원은 98년 7월에 방 6실과 농업체험 시설(허브재배 온실, 가족농가체험)을 갖추고 있다. 추령장승촌에는 추령관광농원이 공사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 사업계획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4.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기대 효과

순창군이 군정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기대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효과로는 친환경적인 지역개발로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산품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고급화로 농산물 판매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고추장, 장아찌 등 개성 있는 전통 향토음식 개발 및 전승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으로 농산품의 판매만이 아니라 다양한 농업 관련 서비스, 숙박,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순창군의 각 경제부문간의 연결을 기술하는 사회회계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그 안에 그린투어리즘 산업을 두어 이에 대한 수요가 초래하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그러나 순창군은 그린투어리즘 사업이 아직 계획단계이며 자료의 제약상 수량적인 계측은 곤란하였으므로 보다 사업이 구체화된 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로 일본의 京都府美山(미야마)町の 도시농촌 교류산업을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회회계 매트릭스로 분석한

표 2. 순창군 그린투어리즘의 사업구상

지역이미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과 전통을 살린 지역이미지 구축</li> <li>-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li> <li>- 도시인이 찾아와서 체험하고 체재할 수 있는 여건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인이 즐겨찾는 분위기 조성</li> <li>- 그린투어리즘 대학 설립 운영</li> <li>- 계절별 강좌개설</li> <li>-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li> <li>- 향토문화 관광자원 개발</li> </ul>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잦은 접촉, 교류를 통한 친숙관계 유지</li> <li>- 주말 농장 등을 매개로 한 가족적 연대의식 함양</li> <li>-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산물 시장개척을 통한 상호 이익보장</li> <li>- 지역연구자를 이용한 방문객 증대방안 강구</li> <li>- 꽃화원 조성 및 꽃축제 개설</li> </ul>
손님맞이 체제 정비 및 기반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모델지구 개발 기반조성</li> <li>- (장기)특정지역 마을 집단화</li> <li>- 지역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체험 코스 등 프로그램 개발</li> <li>- 체험 안내자의 양성과 친절교육</li> <li>- 토속음식 연구 개발</li> </ul>

표 3.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사업

1. 자연환경을 활용한 도시인 휴식공간 제공	- 회문산 종합개발(국유림289평)	*자연휴양림, 국민정신 교육관, 빨치산활동루트 복원, 비목제 행사
		*자연휴양림과 통나무집에서 6·25 당시 비극 체험
	- 산림박물관 조성(31,545평)	*1997~2001년(5개년) *산림문화전시관, 산림현장체험, 자연학습장 등
	- 산촌마을 종합개발(회문산 주변 3개 마을)	*주거환경 개선, 무공해 산채 단지조성, 회문산 전적지 복원 등 *민박을 겸한 산촌마을, 회문산 전적지 체험
	- 상송 온천개발 -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조성(30,000평)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등
2. 지역특성과 전통을 살린 향토음식 육성	-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조성	*54가구 입주, 전통고추장과 장아치류 판매 *민박을 겸한 순창전통고추장 제조과정 시연 등
	- 먹거리 골목 조성	
	- 전통향토음식 개발	*순창뽕잎 비빔밥(고혈압, 당뇨, 항암 효과, 치매예방) *토속민속주(가잡 동동주, 흑미청주, 찹쌀 백일주)
3. 문화유적지 정비 및 복원	- 전통사찰 복원	
	- 국악원 건립	
	- 신말주 선생 세거지 복원	
	- 삼인대 기념관 건립	
	- 성황대신 사적지 및 흙어미산성 복원	
	- 설공찬전 기념비 건립	*최초의 한글소설
4. 도시인의 농촌 체험 환경조성	- 주말농장 조성	*관광농원(3개소) - 야외수영장, 황토방, 사슴목장, 허브농장 등 *민박을 겸한 인접관광지 볼거리 제공
	- 농업체험 현장 환경조성	
	- 가축 위탁사육 등 관심거리 제공	
	- 야생화 동산, 사슴목장 조성	
5.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	-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	
	- 성황대신제 및 단오절 행사 부활	
	- 이벤트 개발	*밤줍기대회, 과일주 담기 등
	- 장승축제와 당산제 등 토속제 문화행사	*장승축제: 매년 10월(1개월간), 추령 장승촌
	- 군민의 날 축제	*매 격년 10월
6. 순창 국제화 연구회 구성운영	- 그린투어리즘 민간추진체 구성	*1998년
	- 지역민간분야 국제교류 선도	*1992년 제3차 아시아 그린투어리즘 총회 개최
	- 외국어 사랑방 운영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학습
7. 군민 정착인구 증대운동	- 다시 돌아오는 농촌운동 전개	
	- 대학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	
	- 청정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 대기업 연수원 유치	
	- 도시지역과 자매결연 추진	

결과(宮崎猛, 1988: 31~39)에 의하면, 도시농촌교류 산업에의 최종수요가 1000만엔 증가하면 美山町 경제 전체에서 1,532만엔의 조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도시농촌 교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비교적 크다. 이것은 도시농촌 교류산업과 지역내 타산업과의 연관이 강하여 부가가치가 유발되며 상업, 농업, 건설업의 순으로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어서 지역 경제 전체가 널리 윤택하게 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부 내방객이 지불한 금액에서 순수하게 지역소득으로 된 금액은 지역주민 소득 전체의 2.9%의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총취업인구의 4.2%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효과로는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며, 친절한 주민의식으로 군민 정서가 순화되어 열린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군민 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주민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화합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다.

#### IV. 그린투어리즘과 지역사회조직: 관광마을 일본 시라카와촌의 사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일본의 사례는 직접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의 성패는 지역사회의 잠재력으로서의 유형·무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인력, 조직 등 "사회자본"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전통가옥의 보존으로 관광산업을 성공시킨 일본 산촌의 사례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있어서 지역사회조직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오기마치(荻町)는 기후현(岐阜縣) 북서부에 위치한 시라카와촌(白川村)의 한 마을이다.<sup>5)</sup> 합장가옥(合掌家屋)<sup>6)</sup>으로 널리 알려진 이 집락은 토야마현(富山縣)의 두 집락과 함께 "白川郷·五箇山合掌家屋集落"으로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이 집락만으로 연

간 100만 명의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험난한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연평균 1~1.5m의 적설량을 보이는 이 집락은 극심한 기후적·지리적 조건 때문에 최근까지도 외부와의 왕래가 곤란했던 곳으로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비경(秘境)"으로 불리웠으며, 그 결과로 이 집락에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전통적인 사회제도, 민속, 관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패전 후 고도경제 성장기에 들어서서 이 지역에 댐이 건설되는 등 전원(電源)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산업구조나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원개발로 일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지만, 이촌현상이 시작되면서 점차 전통가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자 합장가옥의 감소가 현저하게 되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마을 주민들이 1981년에 "오기마치 집락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회"(이하 "지키는 회"로 약칭)를 발족하여 합장가옥의 보존에 노력한 결과 1995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이르러 이 지역은 점차 전원(電源)마을에서 관광마을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기마치의 인구는 1995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619명, 세대수는 148호이며, 고도경제성장기에 경지가 없는 산간부에 위치하여 생산기반이 취약한 제1차산업이 쇠퇴하면서 이촌에 의한 지속적 인구감소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취업구조도 관광촌이 되면서 민박, 여관, 음식점, 토산품 소매 등 관광업 종사자만의 비율이 31%를 점하고 있다.

오기마치의 전통가옥 유지는 상호부조적인 공동작업으로서의 "유이"(結い: 한국의 두레에 해당)라 불리는 주민참가에 의해 성립하고 있다(八浦 谷, 1990). 유이는 과거 농촌에 존재하였던 상호부조적 노동력 교환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농작업에서 가옥이나 도로의 보수와 청소에 이르기까지 집단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것에 이른다. 사회적 분업이 발달하지 않고 기계력도 불충분하던 농촌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적인 관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해체에 따라 "유이"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나 이 집락의 지붕갈기 작업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같은 합장가옥으로 유명한 이웃의 토야마현에 있

는 고카산지구(五箇山地區)도 지붕갈이는 전문업자에게 맡겨져 “유이”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시라카와에만 남았는가? 아마도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는 “지키는 회”의 조직과 리더의 존재이며, 둘째는 지역조직으로서의 “구미”(組)라 불리는 자연조직의 활동이다.

합장가옥의 지붕갈이에는 약 15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데, 50명 정도의 사람이 급경사를 이루는 지붕에 올라가고 약 100명 정도의 사람이 릴레이식으로 짚을 나른다. 지붕위의 사람은 주로 남자이고 짚을 나르는 사람은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다. 이 장면을 찍기위해 전국에서 카메라맨들이 운집한다. 즉 “유이”에 의한 지붕갈이 장면도 관광수입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관광객이 볼룬티어로 참가하여 지붕갈이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관광객에게 주는 즐거움이 되고 있다.

이 마을은 모두 7개의 “구미”로 구성되어 신사와 절의 종교행사는 물론 행정의 연락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세부에 걸친 실제적인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다. 보통 하나의 “구미”는 20호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고초”(伍長)라 불리는 대표가 선발되어 운영된다. 이 “고초”의 회합인 고초회(伍長會)는 오기마치의 사업계획과 예산까지도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순수한 주민조직이 행정기구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유이”와 같은 노동력 제공도 바로 “구미” 단위로 행해졌으며, 실제로 민가의 지붕갈이 작업도 “구미”가 팀을 만들어 상호부조하면서 실현시킨 것이다. 오기마치가 오늘날 관광촌이 된 것은 “지키는 회”의 결성에 의해서이지만, 그 때에 전 주민이 즉각 참가할 자세를 갖게 된 것도 바로 “구미”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장집락의 보존운동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조직 위에 새로운 옷을 입힌 것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1967년부터 1975년 사이에 가옥이 대량으로 촌외에 팔리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면서 집락보존에 관심을 갖던 시라카와촌 의원 2인이 같은 시기에 에도시대 민속마을 보존사업을 벌이고 있던 근처의 츠마고(妻籠) 지역에서 힌트를 얻어 대책을 수립하고 1981년에

“지키는 회”를 발족하였다. 오기마치의 주민 전호가 가입하여 민가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전부를 보존하려는 취지였다. 그리하여 1986년 9월 오기마치는 츠마고와 함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다. 처음으로 이 마을에도 국가의 보호가 가해짐과 동시에 1년에 한 번 있는 지붕갈기 작업으로 “유이”가 계속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라카와의 민가는 아름다운 형태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집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통조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미 앞에서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의 특징이 집락을 단위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상통하는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키는 회”는 합장가옥을 “팔지 않는다, 대여하지 않는다, 부수지 않는다”라는 3원칙의 주민헌장을 책정하고 문화재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민속영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전국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구보존기금을 만들어 합장가옥의 복원, 수리, 경관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여 문화적 유산과 그 주변 자연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주민의 세대교체가 되면서 그리고 젊은 층의 정주조건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후계자 양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집락내의 여러 집단 가운데 청년회의 활동은 젊은 층의 유출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으나, 부인회의 활동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호온코오”(報恩講: 정토진종 문도들에 의해 매년 하고 있는 중요한 불교행사)에 반드시 “구미”의 사람들과 친척을 부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白川郷 女性포럼”을 결성하여 여성의 참여와 의식개혁을 유도하였다. 부인회의 “제2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인재양성(人作り)의 필요에 의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여성을 매년 8명씩 3년간 기획위원을 구성하였다. 여성포럼을 모태로 젊은 층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새로이 “白川郷 文化포럼”이 탄생하였으며, 92년부터 매년 서로 다른 주제로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인들을 지역에 결집시키게 되었다.

또한 “지키는 회”는 정부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인 “故郷創生1억엔사업”을 제안할 때 합장가옥에 조 명등과 방화전을 설치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분 산형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아이디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분산된 제 시설이 일시에 작동할 경우 느껴지는 감동도 상품이 되기 때문이었다.

시라카와촌의 사례에서는 전통가옥과 환경의 유지를 위한 조직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합장가옥, 자연, 공간구조 등이 하드의 보존이라면 조직은 바로 소프트의 보존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시라카와의 민가는 아름다운 형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집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통조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드와 소프트를 정교하게 조합시키면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유이”와 같은 전통적 조직이 없었다면 합장가옥은 유지가 곤란했을 것이며, 따라서 전통가옥의 보존이 공동체의 존속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V. 토의 및 결론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은 이제 막 시작했을 따름이다. 순창군의 지역활성화 전략은 그 계기를 그린투어리즘에서 찾고자 하는 발상뿐만 아니라 그 사업 목표 및 방향도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린 투어리즘이 성공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여러 조건들과 역점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력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인에게 어필해야 하며, 행정적 지원과 연차적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숙박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 산업으로 발전시킬 경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보매체 이용을 통한 홍보방안도 필요하다. 한정된 자원만으로 도시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인근지역과의 연계 개발의 필요도 제기될 것이다. 한 농가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정비해야 한다. 숙박위주의 민박보다는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전원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구매 및 주문배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이같은 역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점들을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관광에 결부시키고자 하는 철학이자 운동이며, 지역활성화는 그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이다. 흔히 관광은 “보다, 먹다, 놀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은 “이야기하다, 만나다, 배우다”라는 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관광이 도시인에게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민도 농촌생활에 자긍심을 갖고 일상생활을 즐기지 않으면 안되며, 결국 도시민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주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은 위안, 레저의 개념에서 앞으로는 학습과 치유의 장으로서 농업·농촌의 다면적 가치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그린투어리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본에서 농가민박을 경영하고 있는 K씨와의 인터뷰 내용은 그러한 관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산간부에 위치한 K씨 부부는 모친과 결혼한 아들, 그리고 손자와 같이 살면서 이미 8년 전부터 도회지의 친구나 친지들이 쉬고 가는 교류를 해오고 있었으나 행정의 권유로 이를 확대하여 농가민박, 시골체험, 회원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과의 회의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빈 시간과 빈 장소”를 제공해주며 어른에게는 고향을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체험케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기본은 자신의 생활을 깨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즐거워하면서 도회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농작업으로 바쁜 시기에 거절을 하지만, 포도, 감 등의 과일의 출하 적기에는 전화를 해서 찾아오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K씨 부부의 이야기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자긍심을 갖고 이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린투어리즘이라고 말한다. 소득증대와 같은 경제적 문제는 그다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과 매우 큰 거리를 느끼는 이야기지만, 그린투어리즘의 철학을 이

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K씨 부인이 말하는 농가민박에 대한 신조는 (1) 마음을 다하여, (2) 친절함과 진심으로, (3) 사랑으로, (4) 만남을 중시, (5) 스스로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하나의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소프트의 측면을 동원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지역활성화나 그린투어리즘의 특성이 집락을 단위로 하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촌락과 우리 농촌의 사회관계와 조직구성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순창군의 경우는 민간조직으로서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가칭)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을수준에 뿌리내린 조직과는 별개 수준에서 작동하는 조직이다. 마을 리더와 학식이 있는 전문가,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정담당자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로서 마을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고 사업내용이 내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학습모임, 심포지엄 등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컨설턴트가 투입될 필요도 있다. 순창군의 경우에는 주민의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연부락과 동종직업을 가진 직능별 조직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고추장 생산농가의 집단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개별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조직 활동이 가능한 부분과 개별 경영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순창군에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개별 농가보다는 마을 수준에서 각기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이 세대를 넘어 지속성을 갖고 변화에 반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철학을 익히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3차 아시아그린투어리즘총회에서는 가칭 "21순창학당"(순창군 그린투어리즘연구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쥬크"(塾)라 불리는 비공식 조직을 통해 영농후계자들이 논의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실천하는 소모임들이 있다. 그것은 구태여 마을 수준에 한정되지 않는 지리적 광역성을

갖고 있다. 시라카와촌의 사례에서와 같은 여성의 모임을 자발적으로 육성하여 참여를 유도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을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의 참여 역할도 기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아름다운 지역, 매력 있는 지역, 활력 있는 지역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농촌의 수려한 경관은 도시인에게 매력을 줄 수 있다. 경관을 무시하고 무계획적으로 난립해 있는 건물, 도로, 훼손된 자연은 도시인들을 찾지 않게 만든다. 시라카와촌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가 지켜야 할 규범(주민현장, 관리조례 등)을 제정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이상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하였으나, 이 외에도 지적할 점은 많다.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인간의 심성을 키워나가며 자연의 힘과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함께 사는 법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며,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린투어리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지 성공사례나 방식을 배우는 것만으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 주

- 1) 우리 나라 농촌관광은 농어촌정비법 제66조에 규정한 농어촌 휴양산업에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주말농원, 농어촌 민박사업 등으로 반영되어 주로 농어촌 농외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관광농원사업은 농촌관광개발 사업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로 중점 추진되어 1984년 12개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99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약 491개소가 지정되었다. 그 외에도 1989년에 휴양단지 조성, 1991년에 민박마을 지원사업 등이 시작된 바 있다(유승우, 1999).
- 2) 1996년 순창군 산업구조를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농업종사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산

업구조가 1차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실시한 “21세기 순창비전”(1998)에 나타난 산업별 지역총생산 가운데 농림어업의 비중이 61.9%로 전라북도 평균이 20.7%에 비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 3) 우키하정은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사례지역으로 자주 소개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자랑거리를 찾아 홍보하도록 하는 지역만들기(地域作り) 운동을 전개하여 가파른 산기슭의 계단식 논을 도시민들에게 분양하고 농사체험 및 문화교류를 위한 시설, 감서리 등의 이벤트 개최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葛籠(츠즈라 부락)의 “계단식논(棚田) 소유제도”는 유명하며 2000년 9월의 전국 계단식논 서미트가 이곳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농업의 특징은 산간부의 차, 산기슭의 감, 포도, 배, 복숭아 등이며, 평탄부에서는 토마토, 딸기, 화훼 등으로 쌀 이외의 작물이 많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농원(과수원)이 많다.
- 4)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사업구상은 98년도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보고서로 제출한 “21세기 순창비전”이라는 종합개발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다.
- 5) 이 집락에 대한 개요는 김일철(1994), 문옥표(1998)의 글에 일본 지역활성화의 한 사례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 6) 合掌家屋은 지붕이 두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러한 건축양식을 “合掌作り”라고 부르고 있다.

### 참고문헌

1. 김선기·이미혜(1992), “관광개발의 지역경제적 편익효과에 관한 고찰,”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 7, No.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김범수(1997), “일본의 자연휴양촌 정비사업,” 산

- 림휴양연구 1(1), 한국산림휴양학회.
3. 김범수·이주희(1997), “농산촌에 있어서 Green Tourism의 전개를 위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의식조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3): 183~199.
4. 김종숙·민상기(1994),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5. 김일철(1994), 일본 농촌과 지역활성화 운동, 나남출판.
6. 농협중앙회(1993), 관광농원 실태와 발전방향, 조사연구보고 93-10.
7. 민상기 외(1995),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15.
8. 류선무(1995),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농림부.
9. 문옥표(1998), “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 농촌사회 제8집, 한국농촌사회학회.
10. 손대현(1994), “여가 관광산업의 비전과 관광개발의 방향,” 관광학 연구 18(1), 한국관광학회.
11. 손대현 외(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12. 순창군지편찬위원회(1982), 순창군지, 순창군.
13. 야마자키 미쓰히로 외 저/강신경 외 역(1993=1997), 녹색관광, 일신사.
14. 오순환(1997), “새로운 관광개발 개념의 모색,” 관광학 연구 20(2), 한국관광학회.
15. 유승우 외(1997),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72.
16. 유승우(1999), “우리나라 관광농원개발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관광농업학회 발표자료.
17. 이강로(1994), “지방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관광학 연구 18(1), 한국관광학회.
18. 이경진(1996), “농촌관광계획의 그린투어리즘 도입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 2(1), 한국관광정책학회.
19. 이광희·변재진(1992),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생태유지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녹색관광개발방안의 확산모색-,” 관광학 연구 16(1), 한국관광



- 학회.
20. 이광희(1994),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으로서의 관광개발," *관광학 연구* 18(1), 한국관광학회.
  21. 장인식(199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의 수단화 연구," *관광학 연구* 21(1), 한국관광학회; 서중혁(1991), "한국 관광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관광농업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강원도.
  22. 한국관광공사(1996),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23. 한국산업개발연구원(1998), *21세기 순창비전: 1999-2008*, KID용역보고서.
  24. 井上和衛 외(1999), *地域經營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 都市文化社.
  25. 勝野武彦(1997), *緑地・自然環境から見た農村再構築*, *農村計劃學會誌* 16(2): 149~153.
  26. 佐藤 誠(1999), "아시아 투어리즘의 희망과連携," 제3차 아시아 그린투어리즘회 심포지엄 발제문.
  27. 宮崎 猛(1997),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と日本の農村*, 日本農林統計協會.
  28. 森山恵一(1992), *自然環境復元の技術*, 朝倉書店.
  29. 八浦 谷(1990), *建築知識*, 日本建築協會.
  30. 山下晉司(1996), *觀光人類學*, 新曜社.
  31. 横川 洋(1999), "일본에 있어서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그린투어리즘," 강원대학교 국제학술 심포지엄 발제문.
  32. APEC Tourism Working Group, *Tourism and Environment Symposium*, 1995: 46~47.
  33. Beck, Ulrich(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34. Droms, W. G.(1990), *Finance and Accounting for Non-financial Manager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35. Ghai,Dharam(1994), *Development and Environment: Sustaining People and Nature*, Blackwell Publishers.
  36. Miyazaki, T.(1995), "Meaning and Strategy of Green Tourism," *Agriculture and Economy* 61(13).
  37. Miyazaki, T.(1996), "Green Tourism and New Business," *Agriculture and Economy* 62(10).
  38. Montanari, Armando(1996), *Tourism Policy, European Debates and Local Policies*, Avecrey Ltd: London.
  39. Mormont, Marc(1987), "Rural Nature and Urban Nature," *Sociologia Ruralis* Vol. 27 No. 1.
  40. OECD(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41. OECD(1994),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to Rural Development*.